

서병수 “비대위 출범하면 이준석은 자동제명·해임”

〈전국위 의장〉

국민의힘 5일 상임전국위·9일 전국위 ‘비대위’ 전환 결론 “늦어도 10일까지 모든 절차 마무리…새 지도부 임기 2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에 각각 열기로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겠다”며 “(개최) 3일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는 전국위의 경우 9일 오전 9시에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를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썼다. 이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비대위 전환시 복귀 가능성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 이 대표가 곧 법적 대응 등 전면전에 돌입하리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운이 짙게 드리운 상황이다.

5일 상임전국위에서는 먼저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맞는지 등에 대해 토론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내린다.

만약 비대위로 결론이 나면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된 당헌 96조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은 9일 전국위에서 의결에 부쳐진다. 의결 후 곧바로 비대위원장 임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상임전국위에서 유권해석 결과 비상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전국위는 안 열리게 된다.

서 의원은 “당헌 개정이 마무리되면 다음 수순으로 비대위원장을 의결해서 임명 결의를 할 수 있다”며 “같은 전국위에서 계속할지, 차수를 바꿔

서 할지는 상황 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8월 9일, 늦어도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확인하는데 조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를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위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당헌에 대해선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완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당헌당규상에도 전국위에서 전대에 같음해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 이후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서 의원은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라는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이 대표가 제명·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법적 대응 등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며 “지도부 결정 권한을 갖는 몇 분에게 너무 적대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하고 향후 정치적인 걸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이후 전대를 거쳐 출범할 새 지도부의 임기에 대해선 “비대위 다음에 열리는 전대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비대위가 꾸러지면 비대위원장과 원내 대표단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며 “공식적으로는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지도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세종시 세종동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 정진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공직기강실 무속인 법사 의혹 조치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힘 비대위 전환 ‘윤심’ 작용 여부 “당 관여 안해” 기존 입장 재확인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 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

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자라시(정보지)가 돌았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전환에 이른바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당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 홍보·정보·정무·정보 신설 가능성 관련 보도엔 “특보 관련해 지금이 시점에서 발표하거나 확인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며 여러 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사훈·박지원 전 원장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이번 고발 건은 청와대(대통령실)가 기획해서 지시하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3대 기관을 총동원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국정원을 해집어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김진표·펠로시 회담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간 회담 일정에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미중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한미 국회의장 회담에서 아시아 경제와 양국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 국회 및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펠로시 의장 간 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협

력, 기후위기 등 현안을 놓고 약 50분간 진행된다. 양국 의장은 회담 결과를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두 원내대표는 이후 국회 사랑제에서 진행되는 오찬 일정에도 함께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 및 오찬 일정에선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윤재옥(외통위원장) 윤상현 의원, 민주당 이재정 이원욱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도 추가로 배석할 예정이다.

애초 원내대표들의 참석 계획은 없었지만, 두 원내대표가 김 의장에게 참석 의향을 전하며 배석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

광주전남지역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3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특별법으로도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루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이 시행되면 특허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특허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이 45-90일 내에 처리되고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시

설 구축 비용이 지원된다.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해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전략 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도 지원한다. /오광록 기자 kroh@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